

자제력의 원칙 동기



“어느 누구도 제아무리 약삭빠르고 철저하더라도 하나님과 맞설 수는 없다.” (잠언 21:30 TLB)

저자: 존 슈룩 (사업가)

이 원칙에서 발견된 핵심 개념에는 밑줄 그으세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어느 누구도 그를 맞서 경쟁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최상이며 또 무엇이 작용할지 그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를 최후의 권위로 인정하고 그의 법과 원칙에 따라 삶과 비즈니스와 국가를 조직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형편은 더욱더 나아진다. 인생은 원래 힘들게 살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우리가 불순한 동기에 따라 삶을 영위함으로써 힘들게 만들어 가고 있다. 동기란, 일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인 또는 그를 위한 동기부여를 의미한다. 어떤 사람들은 상거래에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나서 그것을 ‘약삭빠르게 잘한 일’이라고 말한다. 이런 일은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도덕적 부패로 이끌어가다. ‘웹스터사전’은 ‘약삭빠르다’는 말을 ‘세속적으로 지혜롭고 똑똑하거나 진실에 근접하다’라고 부정적인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늘 참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실을 속이고 똑똑하거나 약삭빠르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를 파멸하게 한다.

예수님은 “멸망에 이르는 데에는 넓은 길이 있지만 생명에 이르는 데에는 좁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라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는 우리의 삶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셨다. 아이들은 성장하려면 먹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워야(먹어야) 한다. 그러나 진리를 기반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약삭빠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 아이가 먹는 걸 멈추면 그는 죽고 만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에 대한 배움을 멈추면 우리는 영적, 정신적, 육신적으로 모두 사망하게 된다. 그것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도 같다. 멈추면 쓰러진다. 사과 빛깔이 푸르면 그 사과는 성장 과정에 있지만 성장이 멈췄을 때에는 썩은 사과이다. 삶은 하나의 과정이다. 우리가 복된 삶을 바라다면 다음 세 가지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1.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2. 사람과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3. 하나님과 그의 법 그리고 그가 인류를 위해 설계한 원칙을 아는 지식을 길러야 한다.

복된 삶은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고 또 우리가 좋은 원칙을 따르며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모습에 책임을 질 때 시작된다. 우리는 하나의 제품과도 같다. 우리의 성품과 가치는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가 정직하고 동기가 순수할 때 우리는 어떤 의제도 숨김없이 개방하고 자유로워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자유를 감지하고 우리에게 맞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와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성이나 영특함을 신뢰할 수 없다. 만일 신뢰한다면 압박을 받으며 힘들어질 때 자신을 노출시키게 된다. 우리가 철저하게 행하는 일은 옳은 일이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진리를 우리의 최상의 자원과 조력자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용할 상식과 실용적인 방법들을 가르쳐주게 된다. 때때로 우리는 자기가 영리하고 지혜롭다고 생각될 때까지 스스로 훈련한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훌륭한 조언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련한 자들이 되고 만다.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진리가 우리의 동기를 순수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과 그의 생각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를 양육하는 손길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 이유는 하나님과 진리가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국은 국민 1인당 변호사 수가 세계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많다. 미국의 소송 건수는 세계 나머지 국가들의 소송 건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다. 우리는 십계명을 해석하기 위해 수천 개의 법을 만든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영특함을 내세워 서로 앞 다투기를 하거나 수십 억 원에 이르는 소송에서 승소하려고 애를 쓴다. 우리는 “남에게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12)는 단순함을 이미 잊어버렸다. 거짓말 하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아무리 약삭빠르고 용의주도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조만간 그 오류를 바로 잡아 주신다. 철저해야 함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다는 걸 확신하고 하나님의 훌륭한 조언을 우리의 상거래와 의사결정의 일부로 활용해 보라. 우리가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자. 그러면 우리가 똑똑하거나 약삭빠른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지게 된다.

이 원칙은 1년 동안 실시되는 인생개발프로그램의 일부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기초

깊이 생각해보기:

아이디어는 당신이 작동시키지 않는 한 절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1에서 10까지 자신을 평가해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당신은 왜 이런 점수를 주었나요?										
당신이 점수를 올리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나요?										
당신은 이 원칙의 유익한 점을 시험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나요?										
이 원칙에 대한 일일 독서 목록을 확인해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완료

미완료